

# 현대 都市와 그의 未來는 ?

Newsweek May 27, 1968

C. DOXIADIS

우리들이 현재 건설하고 있는 도시는 이미 낡은 것이다. 그러나 그 도시들은 우리들이 경탄하는 고대 아테네나 파리의 유명한 도시와는 달리, 지난 수 세대 동안 배두된 이름 없는 도시 시설들이다.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은 백여년 전에 세워지고 계획된 도시의 거리를 아직도 많은 사람들과 자동차들이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오늘날의 도시가 미래의 환경 필요성에 얼마나 부적당하게 설치 되었는가를 알 수 있다.

그러나 그 고대 도시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도시계획을 하는데 수천년 동안 연구 지도하고 실험을 해온 사람들이 발전시켜 온 변함 없는 가치 그것이다. 이러한 가치는 고대 도시 즉 르네상스 시대의 피사 사탑과 루브르에서 개선문 까지의 파리의 전체 등에서 그 형태와 크기에서 나타나고 있다.

그러나 역사적으로 발전된 진정한 인류의 가치를 배우는 대신에 우리들은 새로운 도시들의 “이미지”를 가지고 또 그 도시가 마치 가치의 도시인 것처럼 방호해야 한다. Le Corbusier는 1920년에 3백 만 인구를 위한 미래의 파리를 구상했는데(그 당시 파리의 인구가 3백 만이였으니까) 그것은 현시점에서 볼 때 미래를 위한 계획에는 논리상으로 오류를 범했다.

오늘날 까지도 우리는 이러한 오류를 되풀이하고 있고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. 예를 들어서 속도의 증가도 생각지 못한다. 그리고 오늘날 自家用車가 시속 100마일로 달릴 수 있고 또 적어도 한개의 主鐵道線은(일본에서) 매일 120마일 시속으로 달리고 있는 차체에 최대 시속 40마일 달릴 수 있는 도시의 교통망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.

西南영국, 남프랑스, 타인강 연안, 스페인과 그리이스의 해안, 칼اكتا, 상하이, 동경 등에 건설된 도시의 구조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. 그 도시들은 많은 사람들의 욕망과 인류의 필요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러 가지 힘이 작용한 결과로 생겨 났으며 하나의 커다란 조직으로서 서로 연결 될 때까지 겨우하게 팽창하기를 계속할 것이다. 지구상의 인구가 기술과 자원과 균형을 취할 때 그때에 가서 팽창은 중지될 것이다. 수도는 전에는 부르조아의 공동 사회였었으나 내일의 거대한 市(ecumenopolis)는 우리들의 기술이 우리를 인도하는 과학적이고 발달된 거대한 사회와 일치하는 단지 그러한 도시가 될 것이다.



인류의 도시를 창조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이상을 꿈꾸어야 하고 발전하는 과정을 예상도하며 계획을 현실화 되도록 해야한다.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들이 필요로 하고 건설할 수 있는 도시를 묘사해 내게 된다. 그 도시는 많은 區劃으로 구성되어 그 각 구획은 가치면에서나 그 크기에 있어서 고대의 유명한 도시의 크기와(즉 종횡 2,000m의 넓이) 잘 부합되어야 한다. 그러한 각 구획은 인구수에 따라서 설계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오늘날과 같은 기계와 사람 사이의 복잡한 불립없이 여기서 저기로 걸어서 또는 차를 타고 갈 수 있을 것이다.

미래의 인류 사회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커다란 한 도시를 형성하여 하나의 주요 조직체로 이루어 진다. 그러한 조직체는 階段的으로 구성되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크고 작은 수 많은 中心點을 가지게 될 것이다. 교통 시설은 지하에 건설될 것이고 시속 수백 마일의 속도도 낼 수 있을 것이다. 모든 상품과 구입물품은 특별 接受器를 통해 급속도로 가정으로 직접 배달될 것이며 “현금 없는 사회”에서의 지불은 은행의 계산 조직을 통하여 자동적으로 될 것이다.